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질문 한 단어가 기억을 바꾼다, 오정보 효과(Misinformation Effect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20981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누군가 “차가 박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나요?”라고 묻는다면, 여러분의 기억은 그 질문을 듣기 전과 똑같을까요? 우리는 기억을 머릿속에 저장된 영상처럼 여기지만, 심리학 실험들은 사건 뒤에 들어온 정보가 원래 기억에 슬며시 섞여 들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.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‘오정보 효과(Misinformation Effect)’라고 부릅니다. 오정보 효과란 쉽게 말해 ‘사건을 겪은 뒤에 접한 잘못된 정보나 유도 질문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바뀌는 현상’을 의미합니다.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(Elizabeth Loftus)가 1970년대부터 목격자 기억을 연구하며 널리 알린 개념으로,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다시 짜 맞춰지는 재구성 과정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둡니다. 본 자료에서는 자동차 충돌 실험이 보여 준 결과, 오정보가 기억에 스며드는 원리, 누가 언제 더 쉽게 흔들리는지, 그리고 법정과 일상에서 기억을 지키는 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기억은 녹화가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1. 단어 하나로 달라진 속도와 깨진 유리 오정보 효과를 널리 알린 대표 연구는 1974년 로프터스와 존 파머(John